

지역이라면 ‘알사스-로렌’ (Alsace-Lorraine, 독일어로는 ‘엘자스-로트링겐’ Elsa-Lothringen)지방은 과거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지역의 하나였다. 이 지역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간의 분쟁은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한 이 지역의 강제합병으로 시작되어 1945년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프랑스로 완전히 재편 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sup>1)</sup> 그 양상 역시 무력적 충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정치가들은 경쟁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행정과 통치의 민족적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고, 예술가들은 민족정서 발굴 및 함양을 위해, 역사가들은 이 지방을 각기 자기 민족사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글은 이런 경쟁적 노력 중에서도 특히 양국 역사학자들의 대립적 역사인식이 초래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유럽의 두 강대국 독일과 프랑스간에 전개된 양상이며, 그 역시도 양국간 상호 관계의 긴 역사에서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sup>2)</sup> 아울러 시기적으로도 이 글은 양국 역사가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1871년부터 1918년 1차 대전의 종결 시기까지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알사스와 로렌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간의 갈등은 다른 분쟁지역의 경우와 직접 비교될 수 없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다. 이 글은 유럽의 역사적 사례에 일차적으로 주목할 것이며, 결코 이를 통해 분쟁지역 일반에 대한 보편적 시사점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역사를 둘러싸고 민족간 대결이 불러올 수 있는 파국적 양상을 살피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전형적

- 
- 1) 원래 알사스와 로렌은 각각 독립된 지역으로 역사적 연관관계가 없는 곳이었다. 두 지역이 하나의 ‘알사스-로렌 문제’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70/71년 보불전쟁과 함께였다. 이 지역의 오랜 역사에 대한 개괄을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Michael Erbe 2000; Parisse 1984),
  - 2) 양국간 상호 관계 전반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이 글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런 포괄적 이해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19세기 양국 역사가들의 상호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가 있다(Sieburg 1954; Götde-Baumanns 1971; Jeismann 1992),

물론 이런 경향은 역사연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sup>4)</sup> 그러나 특히 역사학은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알사스와 로렌지방을 둘러싸고 경주했던 노력 역시 민족정체성 확립을 지향하면서 진행된 “민족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들은 이 지역의 역사를 각기 자민족사적(自民族史的)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 및 정리하고, 나아가 각기 역사적 연속에 대한 상(像)을 만드는 방식으로 국민국가를 위해 봉사하였다. 물론 양국의 역사가들이 지역사를 민족사로 발견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특히 알사스와 로렌의 역사가 각각의 민족사 영역으로 발견되기 위해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여러 범주에 걸쳐 있었으며, 실제 역사가들은 이 지역의 (1) 종족적 기원, (2) 정치적 귀속의 역사, (3) 문화적 동질성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었다. 양국 역사학자들의 경쟁적 ‘민족사 만들기’ 행적을 추적하기에 앞서 이 세 가지 범주와 연관시켜 알사스와 로렌의 역사를 짧게 개관하고자 한다.

---

적 연구의 좋은 예이다. Guy P. Marchal(1998), “Das Mittelalter als Identitätsfolie in Frankreich, Deutschland und der Schweiz”, Schweizerisches Landesmuseum (ed.), *Die Erfindung der Schweiz 1848-1998. Bilderentwürfe einer Nation*, Zürich, 146-157.

4) 한 논문집은 자연과학과 민족의 상호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지리학에 의해 발견되는 알사스와 로렌의 민족지리 문제를 다른 논문을 싣고 있다. Iris Schröder(2002), “Die Nation an der Grenze. Deutsche und französische Nationalgeographien und der Grenzfall Elsaß-Lothringen”, Ralph Jessen/ Jakob Vogel (Hrsg.), *Wissenschaft und Nation in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Frankfurt a.M., 207-234.

었다. 그것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속에서 전개되어 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알사스와 로렌인은 고대부터 자체의 역사를 가진 소수 민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결코 독일인이나 프랑스인과 동일시되지 않는다(Ludwig 1995: 140f.). 아울러 흑림지대(지금의 독일 서남부 삼림지대)와 보쥬산맥(Vorges, 프랑스 동북부 중앙산맥지대)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처음부터 경계지역으로서의 성격을 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Pletsch 2002: 6). 그러나 19세기 민족주의 역사가들에게 단일한 종족적 기원에 대한 주장은 자신들의 민족사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논리의 하나였다.

## 2) 정치적 귀속의 역사

알사스와 로렌을 둘러싸고 양국 역사가들이 발견한 또 하나의 민족사 확립을 위한 근거는 오랜 기간 혼전을 거듭했던 지역의 정치사였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유럽 내 국가적 원형의 형성시기로 파악되는 프랑크제국의 건설과 이어지는 9세기 중반 제국의 분열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Mieck 1993: 199).

로렌은 855년부터 샤를마뉴의 손자 로타르(Lothar)의 동명이자 둘째 아들인 로타르의 영지로 중부제국의 북부지역에 해당한 지역이었으며, 알사스 역시 로트링겐의 일부였다.<sup>6)</sup> 로타르의 사망 이후 이 지역은 870년 메르센 조약, 880년 리베몽의 화친조약, 921년 독일왕 하인리히와 프랑스왕 샤를르 사이의 우호조약에 의해 동프랑크제국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지방에 대한 선점권은 동프랑크제국에 있었으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점은 독일 역사가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선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

6) “로렌”은 “로타르의 영지(Lothari regnum)”란 명칭에서 생긴 로트링겐(Lothringen)의 불어식 발음이다. 반면 “알사스”는 알레만인 시대에 까지 거슬러 오르는 지역명칭으로 알려지고 있다(Pletsch 2002: 7),

### 3) 문화적 동질성

정치사와 아울러 알사스와 로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문화적 영역에서 전개되었으며, 무엇보다 그것은 언어의 발전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문화는 정치적 귀속의 문제에 비해 훨씬 오래되며, '결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표식이자 가장 깊숙이 내재한 실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알사스, 로렌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주장은 독일 역사가들의 민족주의에 주로 내재하고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게르만적 동질성에 대한 요구라는 위협한 인종주의가 숨어있었다.

일반적으로 알사스어는 게르만어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알사스어는 공식적으로 알레만인들이 리메스를 넘어 와 라인상류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언어이다(Pletsch 2002: 8). 그 결과 라틴어가 공식어인 보슈산맥 좌편의 갈리아지방과 알레만어적 기원을 가지는 라인강 상류지역 사이에 언어상 차이가 있었음은 명확하다. 또한 근대에 들어 프랑스의 점령기에도 이 지역에서 언어적 동질성은 비교적 위협받지 않았다. 물론 프랑스 혁명 그리고 19, 20세기에 걸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양국의 강압적 언어동화정책으로 알사스의 문화적 정체성에 위협이 가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알사스의 언어적 동질성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는 언어만이 정체성의 유일한 요소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게르만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독일역사가에 맞선 프랑스 역사가들은 갈리아나 로마시대로부터 이어지는 문화적 동질성을 거론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적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1871년 이후 4차례에 걸친 국가소속의 교체 속에서 정책적으로 강제되기도 했다.<sup>9)</sup> 이

9) 반전을 거듭하는 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점령과 함께 강제적 문화정책, 언어 정책은 지역문화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오늘날 전통적인 알사스어

아니었다. 무엇보다 독일의 입장에서 이 지역은 이미 일반적으로 제국의 영역 바깥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대부분의 독일 지식인들은 알사스와 로렌을 더 이상 독일영토로 만들 필요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통일을 주장하던 대표적 인물이었던 역사학자 트라이치케(Heinrich von Treitschke) 역시 다를 바 없었다.<sup>11)</sup> 186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출발하여 알사스를 여행한 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지의 문화가 독일문화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물론 그는 알사스의 프랑스화를 인정하기 보다는 이 지역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독일문화가 약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필자] 이들은 혼혈족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프랑스와 독일문화 사이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지 않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Treitschke 1913: 404)”.

그러나 그는 이 지역이 독일로부터 분리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다른 한 논문에서 그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가 제국에서 빼앗아간 땅”이 이미 독일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백 년 이래 상실한 땅 알사스 및 로렌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이었다(Treitschke 1867: 554).<sup>12)</sup>

11) 작센왕국 드레스덴의 귀족가문 출신이었던 트라이치케는 출신배경을 등지고 프로이센 민족주의자가 되었다. 그의 프로이센에 대한 기대는 프로이센만이 독일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의 정치관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Bußmann 1981; Dorpalen 1972).

12)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한 강제합병이 추진되었을 때에도 다수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알사스와 로렌은 회복된 “민족의 땅”이라기보다는 “통일의 저당물”이자, “숙적”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었을 따름이다. 심지어 제국의 알사스정책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드물지 않았다. 자유주의 정치가이자 법학자였던 로버트 몰(Robert von Mohl)은 “사실판단에 대한 미숙한 자기오만과 무지”가 알사스와 로렌인들의 희망을 짓밟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었 (Wehler 1970: 18).

고 본 이들 프로이센 역사가들은 1871년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대해 커다란 정치적 성공을 보였을 때 학문 역시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별 거부감 없이 수용하였던 것이다.

### 3.2 ‘문화민족’에 대한 인식과 알사스-로렌

그러나 이들 역사가들의 민족주의적 태도는 단지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만 촉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은 독일이 “본연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다는 생각이었다.<sup>15)</sup> 일찍이 18세기 말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이래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에 기반한 독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공고해지고 있었다. 나폴레옹의 점령기를 경험하였을 때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를 토대로 한 독일에 대한 믿음은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대(對)나폴레옹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자유주의자 에른스트 모리츠 아르트(Ernst Moritz Arndt)는 “하나의 언어가 그 경계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의 정부에 의해 조망 및 관리되는” 독일이 “행복의 진정한 단위”임을 주장하고 있었다(Alter 1994: 190f.).

이런 확신에 입각하여 알사스를 독일민족의 땅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보다 일반화되고 있었다. 아르트는 이를 라인강과 그 지역에 대한 요구로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라인강은 독일강이지만, 그것은 독일의 경계가 아니”었다. 이 말은 라인강과 그 인접지역 모두가 독일땅이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라인강의 양편 언덕과 주변 지역은 이전에 그러했듯이 독일땅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떨어져 나간 땅과 인구는 조국에 의해

15) 독일 역사가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는 독일민족을 “문화민족(Kulturnation)”으로 정식화하였다. Friedrich Meinecke(1963), *Weltbürgertum und Nationalstaat*, München, Werke, Bd.V, 10ff. 독일의 문화민족에 대한 국내 소개글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고유경(2004), 「‘문화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서. 통일이전 독일 민족형성의 길」,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소명출판, 331-362.

는 이유를 프로이센만이 유일한 민족통일의 주역일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따로 떨어져 나가려는 지역을 묶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힘은 프로이센이었다.

트라이치케는 알사스 합병의 근거를 역사적 근거와 아울러 현실적인 요구와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이때 그의 태도를 근원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것은 알사스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었다. 물론 그는 왜 알사스인들은 역사, 문화, 언어가 독일에 기원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가를 설명해야 했다. 이에 대해 트라이치케는 알사스인들이 프랑스인들의 국수주의에 의해 “병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적 삶의 원천”이 “오염(verschlammt)”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프랑스적 국수주의에 의해 “완전히 결단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가 가진 희망의 단초였다(Treitschke 1870: 371). 그리고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민족은 수 세대를 잇는 포괄적인 고리였으며 결코 단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독일의 지성계가 이렇게 모두 문화민족 논리에 입각하여 알사스-로렌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찍부터 문화민족 논리에 대한 이견은 있었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헤르더 이래 제기되어 온 문화민족 논리를 반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저인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에서 알사스와 스위스의 예를 통해 언어공동체가 민족의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아님을 밝히고 있었다(Wirtschaft und Gesellschaft 237). 오히려 그는 한 정치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가지는 패권에 대한 요구가 민족의식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sup>17)</sup>

17) 이는 당시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건임을 주장하던 프랑스인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의 국가민족 이념과 유사한 것이었다(르낭 1882). 물론 이런 논리는 베버로 하여금 곧 바로 알사스의 프랑스 귀속을 인정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그의 민족관이 현실적 국가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베버 역시 국가적 이해에 대한 현실적 추구를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된다. 막스 베버의 정치관에

## 4. 프랑스 역사가들의 알사스, 로렌에 대한 인식

### 4.1 '국가민족' 과 알사스-로렌에 대한 이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 양국 간의 오랜 숙적의식은 양국의 상호인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전쟁 발발 전까지 프랑스 역사가들의 독일민족에 대한 태도가 단지 적대적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다수의 프랑스 역사가들은 일찍이 18세기에 친독일적 지식인 스탈 부인(Germaine de Staël)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잊지 않고 있었으며(슈말레 2006: 227f.), 심지어 독일을 “지적 및 미적 문화의 중심지”로 상정하고 있었다(Gödde-Baumanns 1971; Sieburg 1954). 가장 전형적인 예는 질 미슐레(Jules Michelet)나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과 같은 지식인들이었다.<sup>19)</sup>

또한 전쟁 이전에는 알사스와 로렌을 둘러싸고 민족주의적 요구가 강도 높게 제기된 적도 없었다. 물론 당시 가장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앙리 마르탱(Henri Martin)이 저술한 『프랑스사』는 라인강을 독일과의 자연적 경계로 확정하였으며, 이 경계를 따라 형성된 민족적 정체성의 영속성을 주장하고 있었다(Sahlins 1990: 1448).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라인강을 좌우로 하여 어떤 영토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평화적 공존과 화해를 깨뜨리는 어떤 행위의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과 함께 이런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독일역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사학자들 역시 프랑스 민족의 운명과 알사스와 로렌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뫼스텔 드 쿨랑주(Fustel de Coulanges), 이폴

---

19) 심지어 르낭은 전쟁에 패하고 나서 프랑스 지성계가 충격에 빠졌을 때에도 프로이센의 전형을 쫓아 프랑스 문화가 쇠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Gödde-Baumanns 1971: 8f.).

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프로이센에 의한 알사스-로렌 합병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에서는 모든 세력들이 일치하고 있었다.

이런 국가민족 논리와 함께 프랑스적 정체성은 때로 문화적 우월의식과 연결되어 제기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로마문화에 뿌리를 둔 “위대한 조국”이란 생각이 드물지 않게 거론되고 있었다. 민족국가가 “최고의 선(善)(Summum Bonum)”이란 생각 하에 알사스-로렌의 합병을 정당화하는 독일 역사가 테오도르 몸젠(Theodor Mommsen)에 맞선 뤼스텔 드 쿨랑주(Fustel de Coulanges)가 그러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재직한 바 있었던 그는 게르만적 전통에 연결되는 독일과 로마적 전통에 연결되는 프랑스를 대비시켰다(Coulanges 1988: 17). 이런 대비는 곧 바로 고대 프랑스의 정치제도사가 가진 우월성을 전제하면서 고대 게르만적 요소, 독일적 요소에 맞서는 프랑스적인 요소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알사스와 로렌은 역사적으로 독일민족의 야만적 강탈에 의해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일부였으며, 프로이센에 의한 합병과 함께 그 역사가 재현되고 있었다(Coulanges 1988: 18).

#### 4.2 프랑스 역사가들의 갈리아 문화론과 알사스, 로렌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국가민족’과 독일의 ‘문화민족’ 구분은 유럽 민족주의가 보여준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동유럽형 민족주의의 전형으로 독일의 ‘문화민족’은 과거지향적, 비합리적, 반개인주의적임에 비해, 서유럽형의 프랑스 ‘국가민족’은 민족귀속성을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적, 합리적, 미래지향적임이 강조된다.<sup>20)</sup>

20) 프리드리히 마이네케의 ‘문화민족’과 ‘국가민족’ 구분을 발전시킨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는 한스 콘(Hans Kohn)이 보여주었다. 다음 글을 참고하라. Heinrich A. Winkler(1985), “Einleitung. Der Nationalismus und seine Funktion”, *Nationalismus*, Königstein, 5-46, 여기서는 7f.

독일적 정서와 함께 프랑스에서 게르만 이전의 갈리아인에 대한 전통에 대한 강조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게르만의 대이동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전술한 뤼스텔 드 쿨랑주였다. 1891년 사후 출간된 『게르만의 침략과 제국의 종말(L'Invasion germanique et la fin de l'Empire)』에서 그는 프랑스사에서의 게르만적 요소에 대한 과대평가를 거부하였으며(Brühl 1990: 27), 이런 태도가 1871년 프로이센에 대한 패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뤼스텔 드 쿨랑주나 카미유 줄리앙을 인종론자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르만문화와 대비되는 갈리아-로만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연속성을 주장한 뤼스텔 드 쿨랑주의 논리는 사실 갈리아라는 종족적 기원에 대한 주장보다는 라인강으로 구분되는 자연지리적 단위의 형성과 그를 따라 형성된 근대 정치적 귀속의식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Raphael 2003: 149). 아울러 카미유 줄리앙 역시 갈리아적 기원을 논함에 있어서도 종족적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세 개의 갈리아부족으로 이루어진 켈트인이 이루고 있었던 자연지리적 단위를 상정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이룬 정치문화적 귀속의식을 프랑스 민족형성의 중심요소로 평가하였다(Raphael 2003: 161f.). 이로써 라인강을 경계로 한 프랑스 민족의 정치적 경계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에 그는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발상은 프랑스를 이루는 “자연적 경계”라는 인식에 의해 보완되고 있었다. 사실 프랑스의 경계가 대서양, 라인강, 알프스, 피레네에 의해 정해진다는 인식은 오랜 기원을 가지는 것이었다.<sup>23)</sup> 이후 정치인, 외교관, 행정가, 군사전문가를 위시하여 역사학자 및 지리학자들에 의해 선전된 이 생각은 때로 프랑스의 영토적 팽창을 합리화하는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테오도르 몸젠의 문화민족적 논리에 대항하는 뤼스텔 드 쿨랑주나 인종이나 언어가

23) 이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시기 당통에 의해 명시적으로 주장된 바 있으며, 이후 프랑스 외교정책의 주된 원칙이 되었다(Sahlins 1990).

였다(Legrelle 1881: 38f.). 아울러 그는 중세의 알사스를 자치상태로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이 독일제국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평가절하하려 하였다. 나아가 그는 중세 알사스의 이런 상황이 이후 프랑스의 개입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그는 리철리의 시기의 알사스 합병정책을 전쟁피해의 대가이자 안보정책상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라 봄으로써 알사스의 프랑스 귀속을 당연시하였다. 물론 그는 루이 14세가 팽창정책을 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실현불가능한 알사스의 자치요구를 고려한다면 프랑스 지배자의 선정(善政)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Ibid 330). 이와 같이 알사스와 로렌의 문제를 바라보는 프랑스 역사가의 태도는 해당지역에서 “지역과 역사”를 프랑스 민족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적 연속성 논리와 정치적 귀속의 역사를 증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 5. 접경지역으로 알사스-로렌의 지역사적 발견

이미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의 역사가들은 지역민들의 국가소속의식을 중심으로 알사스, 로렌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때로 그들의 논리는 라인강을 자연적 경계로 파악하거나 문화적 동질성을 주장하는 논리에 의해 보완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독일 역사가들의 경우 대체로 문화에 기반한 독일 민족론리가 이 지역에 대한 요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글이 다루는 시기 양국 역사가들은 이런 논리로 무장한 채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알사스-로렌 지방의 민족적 귀속에 대한 이견(異見)을 좁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지역의 역사적이고 지리적 특징을 바라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대립적 인식의 충돌 가운데서도 알사스-로렌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인식의 단초가 형성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인식은 전형적인 양국 역사가가 아니라, 현지 출신이거나 현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의 몫이었다. 물론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알사스를 프랑스의 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이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 출신으로 독일에서

라서 이에 대한 시비를 뒤로 하고 기존의 민족주의적 해석에 대비되는 인식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간 적대의식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야 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 물론 다시 한 번 1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후 알사스-로렌은 프랑스로 반환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 이후 라인강은 다시 프랑스의 국경으로 이해되었고, 프랑스 역사학 역시 이를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알사스-로렌을 위시한 라인지방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를 통해 학문의 민족주의적 오용을 비판하는 연구가 나왔다.

이 글이 대상으로 삼은 시기를 넘어서지만 루시앵 페브르(Lucien Febvre)는 1935년 발간된 『라인강. 역사와 경제의 문제(Le Rhin. Problèmes d'histoire et d'économie)』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간 접경지역에 대한 혁신적 연구의 기원을 마련하였다(Febvre 1995). 이 책은 지금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접경지대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1881년 출판된 이 책을 그는 무엇보다 라인강을 둘러싼 양국의 민족주의적 대립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라인강이 단순히 강이란 하나의 자연적 대상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 이해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Ibid. 12, 41f.). 그리고 그는 라인강이 16세기부터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를 나누는 경계로 생각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에 들어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라인강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의도는 라인강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강이 아니요, 유럽의 강임을 발견하는데 있었다. 19, 20세기에 민족의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군사전략적, 지리학적 의미가 중요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유역에 살아 온 인간들의 의지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라인강은 민족사적 대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인식의 골자

26) 이 책은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알사스은행(Société Générale Alsacienne de Banque)의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청탁에 의해 저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 역사학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족사 인식의 태도에 대한 재조명과 문제제기는 확실히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알사스와 로렌의 역사를 다루었던 프랑스나 독일 역사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에 대한 신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각종의 갈등을 낳은 책임이 상당한 정도 역사가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확실히 이 글에서도 밝혔듯이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가들에 의한 양 지방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중세 이래의 양 지방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자기 민족사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이었으며,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수십 년에 걸쳐 한 지역의 인간들을 비극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이와 같은 역사가들을 위시한 지식인들의 민족사 인식과 그를 위한 의도적 구성의 노력이 인접한 민족간 공존의 파괴를 초래하는 위험한 구성행위였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 하였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과 함께 알사스와 로렌 지역에 대한 급격한 시각의 변화와 그를 위한 온갖 합리화 기제를 발견하기 위한 역사가들의 노력은 배타적 민족주의의 본격화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는 자국 역사의 확립과정이자 동시에 타자의 배제 과정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학술적 작업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여러 가지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사실 현실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프랑스의 지식인들 역시 국가민족이라는 논리 아래 알사스와 로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 역시도 민족국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알사스와 로렌을 둘러싼 “비극적 역사”는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민족의 차이가 낳은 갈등이라기보다는, “구성된 민족적 정체성의 배타성과 그로 인한 적대적 타자관”(Jeismann 1992: 94)

28)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역사학의 비판적 조망에도 다소간 차이가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전후 비판적 민족주의 연구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독일 역사학이 비교적 심도 있게 민족사 서술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면, 프랑스의 역사학은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아직도 결여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Thadden 1991).

을: 나남출판.

볼프강 슈말레(박용희 역)(2006), 『유럽의 재발견』, 서울: 을유문화사.

패트릭 J. 기어리(이중경 역)(2004), 『민족의 신화, 그 위험한 유산』, 서울: 지식의 풍경.

임지현 외(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서울: 휴머니스트.

Alter, P.(Hrsg.)(1994), Nationalismus. Dokumente zur Geschichte und Gegenwart eines Phänomens, München.

Arndt, E.M.(1813), “Der Rhein, Detschlands Strom, aber nicht Deutschlands Grenze”, in: 같은 이, Ernst Moritz Arndts ausgewählte Werke, Bd.13 (Leipzig o.J.).

Bebel, A.(1889), “Reichstagsrede”, in: Stenographische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s Deutschen Reichestages 7, Legislaturperiode, 5. Session, Bd.1, p.44f.

Brühl, C.(1990), Deutschland-Frankreich. Die Geburt zweier Völker, Köln, Bußmann, Walter(1981), Treitschke. Sein Welt-und Geschichtsbild, Göttingen.

Conrad, C./Conrad, S.(Hrsg.)(2002), Die Nation schreiben. Geschichtswissenschaf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Göttingen.

Coulanges, F. de(1988), Der antike Staat. Kult, Recht und Institutionen Griechenlands und Roms, Stuttgart. (프랑스어판 원제목은 다음과 같다. ‘La Cité antique(1875)’. 한국어 번역본이 최근 출간되었다. 퀴스텔 드 클랑주(김웅중 역)(2000), 『고대도시』, 서울: 아카넷.)

Dorpalen, A.(1972) “Heinrich von Treitschk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7, No.3/4, 21-35.

Erbe, M.(Hrsg.)(2002), Das Elsass. Historische Landschaft im Wandel der Zeiten, Stuttgart.

Faulenbach, B.(Hrsg.)(1974), Geschichtswissenschaft in Deutschland, München.

p.140-144.

- Mommsen, W.(1974), Max Weber und die deutsche Politik 1890-1920, Tübingen.
- Mieck, I., “Deutschlands Westgrenze”, Alexander Demandt(Hrsg.)(1993),  
Deutschlands Grenzen in der Geschichte, München,
- Mitchell, A.(1967), “German History in France after 1870”,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2, No.3, 81-100.
- Parisse, M.(Hrsg.)(1984), Lothringen - Geschichte eines Grenzlandes,  
Saarbrücken.
- Pletsch, A.(2002), Grenzregionen zwischen Frankreich und Deutschland: Das  
Beispiel des Elsass und der Oberrheinregion. In: www.Deuframat. de.
- Raphael, L.(2003), “Zwischen Agrarromantik und empirischem Rationalismus.  
Wege der französischen Siedlungsgeographie und Agrargeschichte(1880-  
1945)”, Volksgeschichten im Europa der Zwischenkriegszeit, M. Hettling,  
Göttingen, 147-172.
- Renan, E.(1882), “Qu'est-ce qu'une nation?”, John Hutchinson (ed.), (1994),  
Nationalism, Oxford 17f. (한글판 제목은 다음과 같다. 에르네스트 르낭  
(신형선 역)(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 Reuss, R.(1897), L'Alsace au XVII siècle, Paris.  
———(1907), Histoire d'Alsace, Paris.
- Sahlins, P.(1990), “Natural Frontiers Revisited: France's Boundaries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5, No.5, 1423-  
1451.
- Schöttler, P.(1994), “Der Rhein als Konfliktthema zwscen deutschen und  
französschen Historikern in der Zwischenkriegszeit”, 1999. Zeitschrift für  
Sozialgeschichte des 20. und 21. Jahrhunderts 9, Heft 2, 46-67.
- Sieburg, H.-O.(1954), Deutschland und Frankreich in der Geschichtsschreibung  
des 19. Jahrhunderts, Wiesbaden.  
———, “Aspekte deutscher Historiographie über Frankreich zwischen 1871

**ABSTRACT**

---

Historiography and Nationalism:  
German and French Historiography in a Struggle for the  
frontier region Alsace-Lorraine 1871-1918

Park, Yong-He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lose link between the writing of history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dentity in the case of German-French struggle for Alsace-Lorraine 1871-1918. Alsace-Lorraine was a frontier region between Germany and France, repeatedly disrupted by war. But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lsatians regarded themselves as French patriots. At the same time, they were passionate in the cultivation of their specific identity, which was characterized by a French-German bilingualism and the existence of an Alsatian dialect.

But with the result of the Prussian-French War 1870/71 German nationalists tended to claim the annexation of Alsace-Lorraine. Specially German historians were apologists for the politics of the Imperial Germany. They argued that the annexation was quite natural because Alsatian rooted in German folk by blood and the region was historically part of the Holy Roman Empire before its annexation by France in 1648. In the opposite side in France revenge was a passion which prevailed in that period. French historians argued that Alsace and Lorraine should be restored to France. Above all they rejected the hypothesis of

